

FOREIGN RIGHTS

Alcibiade Didascaux *Extraits des ouvrages*



ATHENA Editions - 10, rue du Berry - 31 130 BALMA - FRANCE
www.athena-editions.fr - athena.editions@wanadoo.fr



아테나 출판사



ATHENA Editions - 10, rue du Berry - 31 130 BALMA - FRANCE
www.athena-editions.fr - athena.editions@wanadoo.fr

아테나 출판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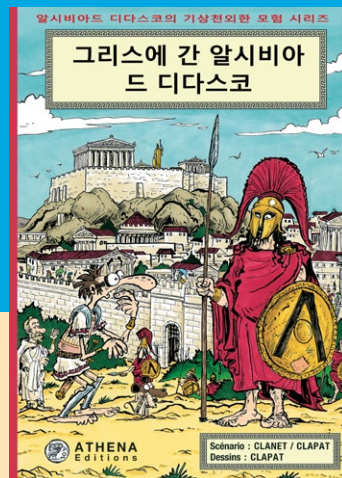
우리의 출판 계획은 이렇습니다.

- ✓ 미래의 시민이 될 독자들을 존중하는 책, 진솔한 내용을 담은 책을 만드는 것. 아홉살에서 열살 무렵 처음 우리 출판사의 책을 만난 어린 독자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난 후 다시 한번 우리 책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은 다양한 독서 계층을 겨냥합니다.
- ✓ 오랜 기간의 역사 연구와 자료 수집을 마친 후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책을 만드는 것. 한 권의 책은 독자의 생각을 바꾸고 독자에게 진정한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한 권의 책에는 윤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출판사가 추구하는 윤리는 바로 « 휴머니즘 »입니다!
출판 시장에 그저 손가락이나 하나 얻는 신간 출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토대를 형성하는 책을 만드는 것. 우리 출판사의 신간이 뜬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시리즈는 첫 출간 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독자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 출판 산업 »에 속하지 않는 독립출판사입니다.
- ✓ 항상 독자를 생각하며 책을 만드는 것.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독자들은 편지로 답해줍니다. 우리 출판사 사이트에서는 독자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편지와 동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리즈의 일부분도 pdf 파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출판사의 네 가지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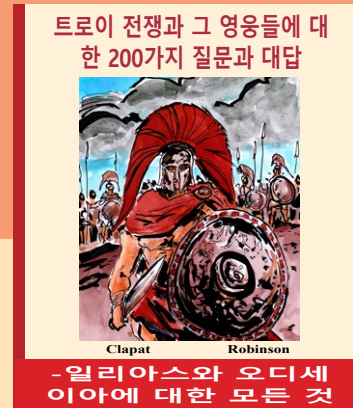
알시비아드 디다스코(ALCIBIADE DIDASCAUX) 의 신기한 모험

고대 그리스 역사를 웃음과
함께 배우는 만화책 시리즈.
어린이와 모든 독자들을
위한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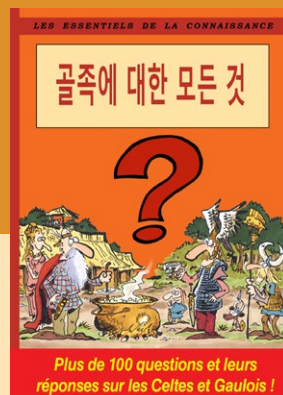
트로이 전쟁과 영웅들에 대한 200가지 질문과 대답(200 QUESTIONS...)

질문, 대답, 그림... 그리고 역사나 신화에 대해
알려주는 세 가지
코드.
모든 독자들을
위한 책 !



골족에 대한 백 가지 질문과 대답(100 QUESTIONS...)

질문, 대답, 그림... 그리고 역사나 신화에 대해
알려주는 세 가지 코드.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는
역사 상식 책 !



트로이의 목마

영웅들이 들려주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
그림이 곁들여진 어린이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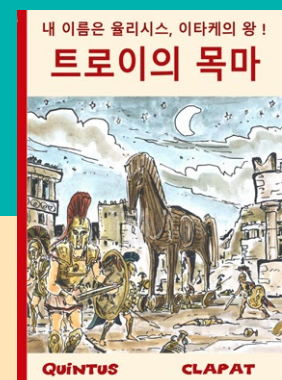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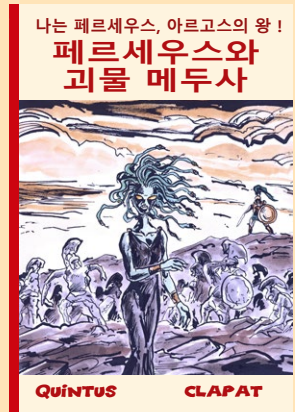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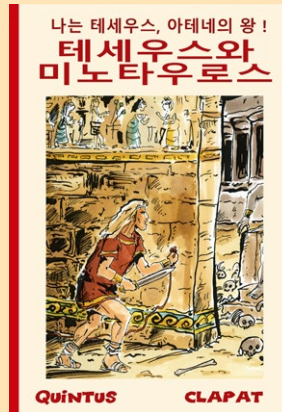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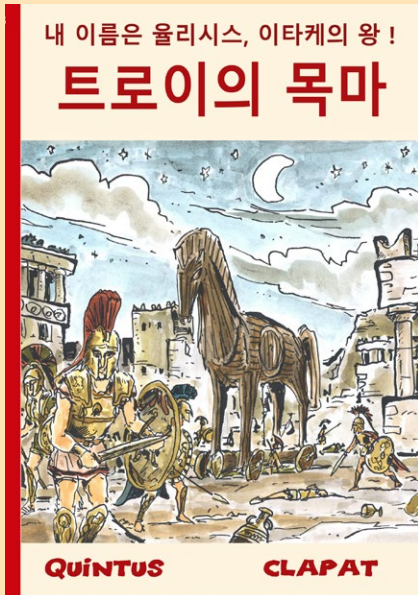


그림 소설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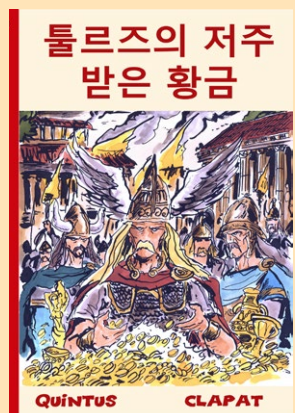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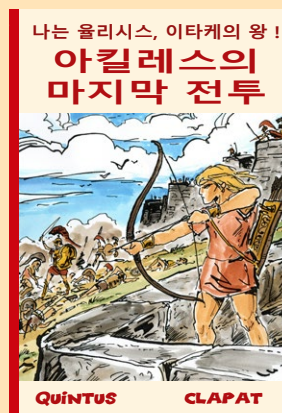
영웅들이 들려주는 그리스 신화

년 신간
2016

아래의 책들은 일년에 두 권씩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섯 권 출간 예정



ISBN 2-913314-21-X

170*120mm 판형. 내지 100g, 160쪽. 실 제본. 표지 270g. 코팅 커버. 정가 9,50유로.



- ✓ 어린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이야기들 중엔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시리즈 첫 권 <트로이의 목마>는 트로이 점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요.
- ✓ 그림 작가 클리파CLAPAT의 일러스트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생생히 살려냅니다.
- ✓ 각권에 담긴 « 이 이야기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라는 소제목으로 주요 등장 인물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줍니다.
- ✓ 각권의 도입부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상세 지도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 지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 ✓ «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들 » 리스트는 어린이 독자들의 어휘력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 ✓ « 지식과 즐거움을 연결하자! » 바로 이 시리즈의 외침입니다.

« 200 가지 질문과 대답 시리즈 »

200*240mm 판형. 내지 120g. 240쪽. 실 제본. 표지 270g. 코팅 커버. 정가 24유로.

트로이 전쟁과 그 영웅들에 대한 200가지 질문과 대답



Clapat Robinson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한 모든 것



그리스 신화에 대한 200가지 질문과 대답



Clapat Robinson

-그리스 신화에 대한 모든 것

출간에정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습니다. 장장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쟁에 대해 일리아드가 단 50일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일리아드의 이야기는 특히 아킬레스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아름다운 포로 브리세이스와 그녀의 납치, 이를 향한 아킬레스의 분노에 대해 들려줍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설명을 보태주는 주요 사건과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일리아스가 씌여지기 이전이나 이후에, 또는 10년 동안 진행된 전쟁의 부속 에피소드 속에 벌어진 것들입니다. 이 « 역사의 파편들 »을 들려주는 건 호메로스가 아닌 다른 작가입니다.

년 신간 2016



ISBN 2-913314-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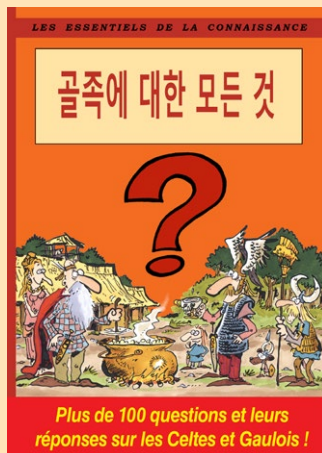
« 100개가 넘는 질문과 대답 시리즈 »

215*150mm 판형. 내지 90g. 128쪽. 실 제본. 표지 270g. 코팅 커버. 정가 11유로.

년 신간 2016



ISBN 2-913314-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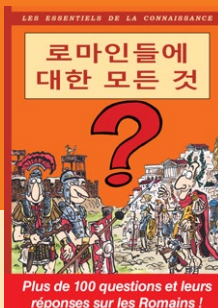
Plus de 100 questions et leurs réponses sur les Celtes et Gaulois !



독자에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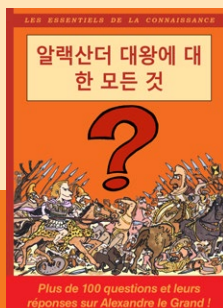
« 어떤 페이지에서부터 읽기 시작해도 문제 없는 책입니다 ! 아무 페이지나 열어보세요.. 질문과 대답이 기상천외한 줌의 지식을 가져다 주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줍니다. 텍스트 하나하나엔 유머 넘치는 일러스트가 곁들여지지요.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까지 남겨 놓았으니 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식 교재라 할 만하지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찾는 바로 그 책. 이 시리즈와 함께라면 누구나 역사 팬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직결된 책읽기의 즐거움을 원하는 시리즈 »

다섯 권 출간 예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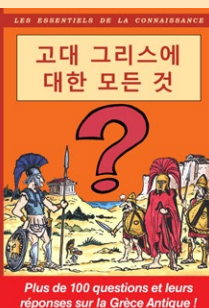
로마인들에 대한 모든 것

Plus de 100 questions et leurs réponses sur les Romains !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모든 것

Plus de 100 questions et leurs réponses sur Alexandre le Gra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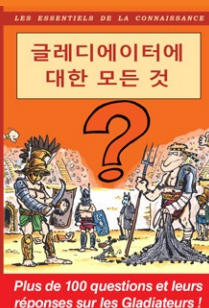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에 대한 모든 것

Plus de 100 questions et leurs réponses sur la Grèce Antique !



고대 이집트에 대한 모든 것

Plus de 100 questions et leurs réponses sur l'Egypte ancien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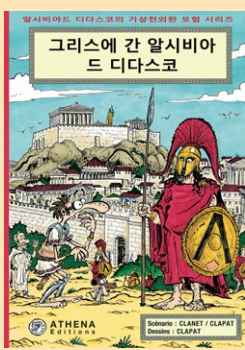


글레디이터에 대한 모든 것

Plus de 100 questions et leurs réponses sur les Gladiateurs !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17권이 나와 있습니다.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시리즈는 한 권씩 따로 읽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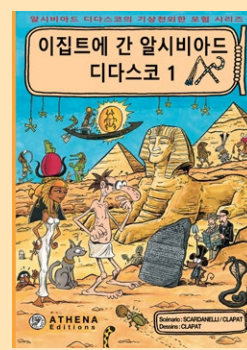
ISBN : 2-913314-16-3
Code : 9782913314160



ISBN : 2-913314-15-5
Code : 9782913314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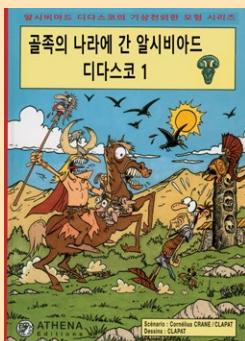
ISBN : 2-913314-17-1
Code : 9782913314177



ISBN : 2-913314-09-0
Code : 9782913314092



ISBN : 2-913314-10-4
Code : 9782913314108



ISBN : 2-9501341-9-X
Code : 9782950134196



ISBN : 2-913314-00-7
Code : 9782913314009



ISBN : 2-913314-01-5
Code : 9782913314016



ISBN : 2-913314-02-3
Code : 9782913314023



ISBN : 2-913314-03-1
Code : 9782913314030



ISBN : 2-913314-06-6
Code : 9782913314061



ISBN : 2-913314-07-4
Code : 9782913314078



ISBN : 2-913314-04-X
Code : 9782913314047



ISBN : 2-913314-05-8
Code : 9782913314054



ISBN : 2-913314-12-0
Code : 9782913314122



ISBN : 2-913314-13-9
Code : 9782913314139



ISBN : 2-913314-14-7
Code : 9782913314146



ISBN : 2-913314-22-8
Code : 9782913314221



2016년 10월 출간 예정

**교육 만화책에 담은
고대사 이야기 !**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함께
역사를 더 쉽게 배우세요.**

유머, 역사만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이 담긴
우리 시리즈는 이미 전문가들과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240*340mm 판형. 내지 150g.
64쪽. 실 제본. 표지 270g.
하드 커버. 정가 19유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기원전 49년. 갈리아 정복(58-51)은 카이사르에게 명예와 부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군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카이사르가 군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공공의 적으로 치부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49년 1월, 카이사르는 갈리아와 이탈리아를 가르는 작은 강 루비콘을 건너 자신의 보병대와 함께 로마로 진군한다. « 주사위는 던져졌다 ! » 이것이 바로 내전과 투쟁의 시작이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으로부터 공화국 수호를 임명 받은 폼페이 대왕과 맞서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나긴 추격전, 지중해 주변을 아우르는 군사 작전과 잊지 못할 대결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적을 뒤쫓는 카이사르의 서사시를 따라간다. 극도의 난관에 봉착한 카이사르가 실패를 알게 되었던 에피르의 디라키움 전투, 48년 결정적인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가 패하고 만 테살리아 전투... 폼페이는 철저히 패배했고 우리는 그가 이집트로 도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할 당시 마침 젊은 프톨레마이우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다는데...

루비콘 강! 이 작은 물줄기는 건널 수 없는 한계선이다. 로마 장군 중 그 누구도 원로원으로 부터 특별한 허락을 얻지 않고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는데....

기원전 49년 1월 12일

단 몇 명의 군사만을 이끌고서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카이사르는 루비콘을 향하는데...

수레에 숨어 이동할 생각을 하다니!

카이사르는 이미 보내 놓은 13 연대를 만나러 갈 것이다...

카이사르님, 아직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요!

특별한 허락을 얻는다는 건 곧 반역자나 « 역적 »으로 몰린다는 얘기. 죽음이 닥쳤다는 말.

라벤나의 카이사르에겐 기병 100명과 5000명의 병사만이 남아 있었다

카이사르는 알프스 너머에 군대를 남겨 놓았다.

마침내 새벽이 되자 카이사르의 무리는 길을 되찾았다.

카이사르는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릴지 말지 망설인다... 과감할 것이나 위대한 업적이나.

로마의 원로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라는 걸, 엄청나게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는 걸 잊지 말자. 바로 이 순간 놈들은 최고 명령권과 무기를 갈아 놓지 않았는가.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 주변에 말 떼를 풀어 놓아 신들께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카이사르는 알레시아의 승자가 아니었던가? 그 용기로 카이사르는 못되먹은 적들을 후려칠 것이다!

카이사르를 최고의 자리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말단으로 끌어 내리는 건 어렵도 없는 일!

동지들이여, 지금 우리는 뒤돌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다리만 건너고 나면 이제 우리의 무기가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갑자기 풍채가 당당하고 인물도 멀끔한 남자가 나타나 병사로부터 트럼펫을 빼앗는다. 그리고는 트럼펫을 힘차게 불면서 강 저편을 향해 당당히 걸었다.

모두 나를 알아볼 테니 내 할 일을 해야지!

주사위는 던져졌다.

신들이 싸인을 보내는 곳으로, 파렴치한 적들이 부르는 곳으로 가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9년의 공백 후 갈리라 전쟁의 승자 카이사르는 다시 조국 땅을 밟았다.

CPQR = CAESAR POPULUSQUE ROMANUS



« 공화국은 형체도 실체도 전부 텅 빈 말일 뿐이다. »
라고 수에토니우스가 썼지



내가 최고야, 내 머리가 제일 크다구!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이놈이 슬슬 짜증나게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맞아요. 폼페이와 카이사르가 처음부터 으르렁대는 사이는 아니었죠.

카이사르는 돈이 부족했던 반면 크라수스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죠.

그렇지. 그런대
도 나는 지금
도 돈이 고파!

애가 바로 크라수스.



하지만 크라수스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약했던 반면 웅변술과 용감하기로 유명했던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잘 알았다.



« 로마의 저명 인사 중 하나 »였던 폼페이는 자기 계획에 반대하는 원로원에 태클을 걸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이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권력에 눈이 먼 이 세 남자의 연합은 기원전 59년 최초의 삼두정치를 낳는다.

크라수스 : 이 백만장자는 재정을 가져온다

폼페이 : 군사력을 가져온다.

카이사르 : 정치적 지략을 가져온다.

나는 거들떠도 안 보
는군!

나도 좀 봐
주라고!

크라수스의 별명은 디비스(부자).



이렇게 해서 삼두정치는 원로원의 과두제에 압력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 권력은 로마보다 이 세 남자에게 있었다구...

독자들도 알아, 그건. 지혜와 철학도 가져올 수 있었다면...



폼페이는 카이사르의 딸 줄리와 혼인했지. 그런데 기원전 54년 9월, 줄리는 아들을 사산하면서 그만 죽고 말았던 거야.

폼페이와 카이사르를 이어주던 가족 관계는 이렇게 끝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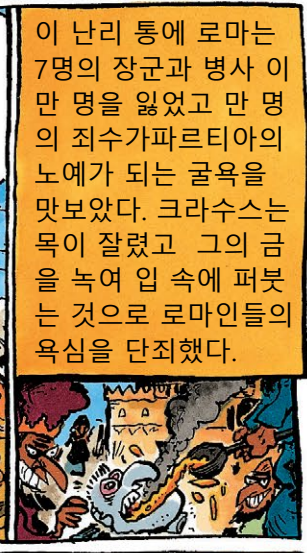


얼마 후, 장인어른인 카이사르가 사위에게 조카 손녀 옥타비아와 재혼하라고 권하고 자신은 폼페이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폼페이는 이 새로운 제안을 거절했어.



1년이 채 지나기도 전, 기원전 53년 6월 1일, 파르티아 제국에 맞서기 위해 동방으로 떠났던 크라수스는 카레의 벡삼복군에 의해 쓰러졌어.



이 난리 통에 로마는 7명의 장군과 병사 이만 명을 잃었고 만 명의 죄수가 파르티아의 노예가 되는 굴욕을 맛보았다. 크라수스는 목이 잘렸고 그의 금을 녹여 입 속에 퍼붓는 것으로 로마인들의 욕심을 단죄했다.



크라수스는 내 친구였는데...



크라수스는 내 친구였는데...



폼페이는 서서히 카이사르와의 동맹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크라수스의 과부 불쌍한 코르넬리와 결혼할 거야.

내 친구였으니까!



맞아. 게다가 엄청 부자고 명문가 스키피오 소속이고...

이런... 나도 폼페이 대왕이라구!

크라수스가 여전히 두 친구 사이에 화합을 도모했던 건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명령을 받드는 데 안달이 나 있었다. 카이사르는 계획을 바꾸었으나 그의 정복욕은 변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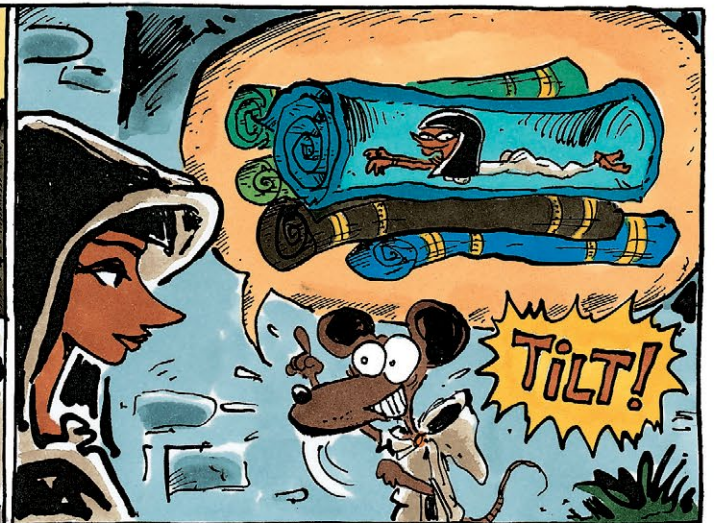
클레오파트라를 저지하기 위한 적들의 충고는 전부 부질 없었다. 그녀를 태운 배가 한밤중 알렉산드리아의 시야에 들어왔다.



클레오파트라는 등대 보조병을 매수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겐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으니. 카이사르가 있는 궁전 문을 여는 것.



이렇게 해서 이불에 쌓인 클레오파트라는 관문을 넘는다.



침대 겹데기는 카이사르에게 도착했다.



바로 그때 침대 껍데기 중 하나에서 클레오파트라가 팔짝 뛰어나와 눈이 휘둥그레진 카이사르에게 그리스어로 말을 걸었다.



(1) (2) 번역. 어머머! 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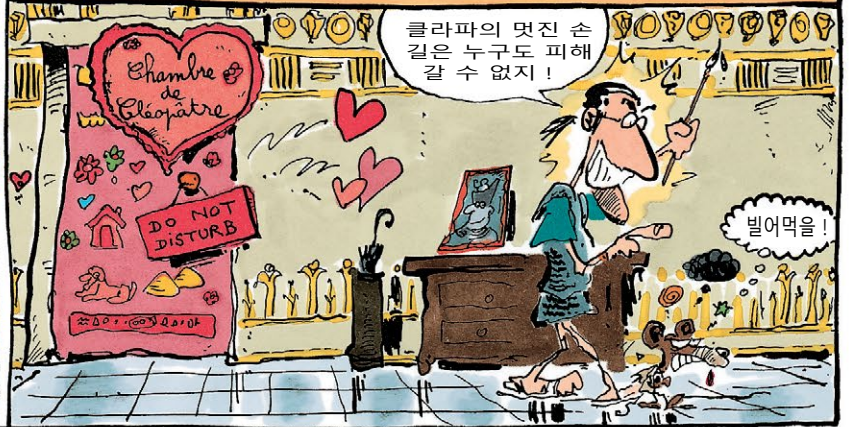
효과는 직방이었다. 클레오파트라의 매력과 지혜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결합해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되었다.



병사들이 « 대머리 매력남 »이라고 부르던 그는 이제 막 53세를 맞았다. 디라키움과 파르살루스 전투로 인해 잠시도 여흥을 즐기지 못하던 차였다.



갓 스무 살 난 클레오파트라의 느닷없는 출현으로 인해 그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음 날, 돌이 트기 무섭게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카이사르 앞에 끌려 왔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유언에 따라 이집트의 왕위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있는 법, 두 사람 모두 왕위를 차지한다.



카이사르가 명한다. 유언은 존중되어야 하며 반목은 끝나야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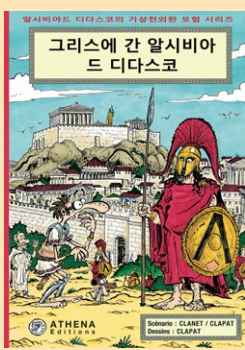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해서 한동안 잃어버렸던 안전과 왕관을 되찾았다.

화려한 연회가 이 « 공식적 화회 »의 뒤를 이었다.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17권이 나와 있습니다.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시리즈는 한 권씩 따로 읽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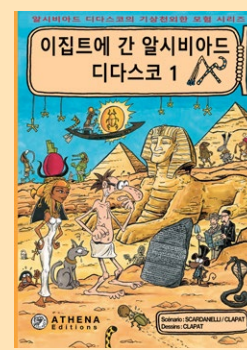
ISBN : 2-913314-16-3
Code : 9782913314160



ISBN : 2-913314-15-5
Code : 9782913314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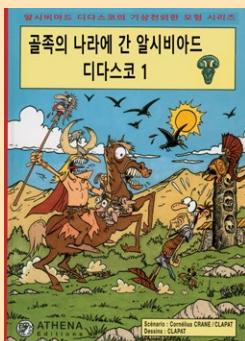
ISBN : 2-913314-17-1
Code : 9782913314177



ISBN : 2-913314-09-0
Code : 9782913314092



ISBN : 2-913314-10-4
Code : 9782913314108



ISBN : 2-9501341-9-X
Code : 9782950134196



ISBN : 2-913314-00-7
Code : 9782913314009



ISBN : 2-913314-01-5
Code : 9782913314016



ISBN : 2-913314-02-3
Code : 9782913314023



ISBN : 2-913314-03-1
Code : 9782913314030



ISBN : 2-913314-06-6
Code : 9782913314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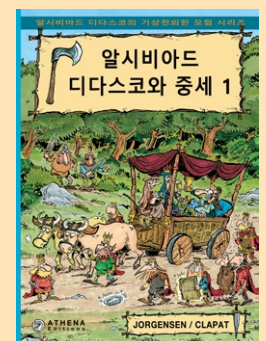
ISBN : 2-913314-07-4
Code : 9782913314078



ISBN : 2-913314-04-X
Code : 9782913314047



ISBN : 2-913314-05-8
Code : 9782913314054



ISBN : 2-913314-12-0
Code : 9782913314122



ISBN : 2-913314-13-9
Code : 9782913314139



ISBN : 2-913314-14-7
Code : 9782913314146



ISBN : 2-913314-22-8
Code : 9782913314221



2016년 10월 출간 예정

**교육 만화책에 담은
고대사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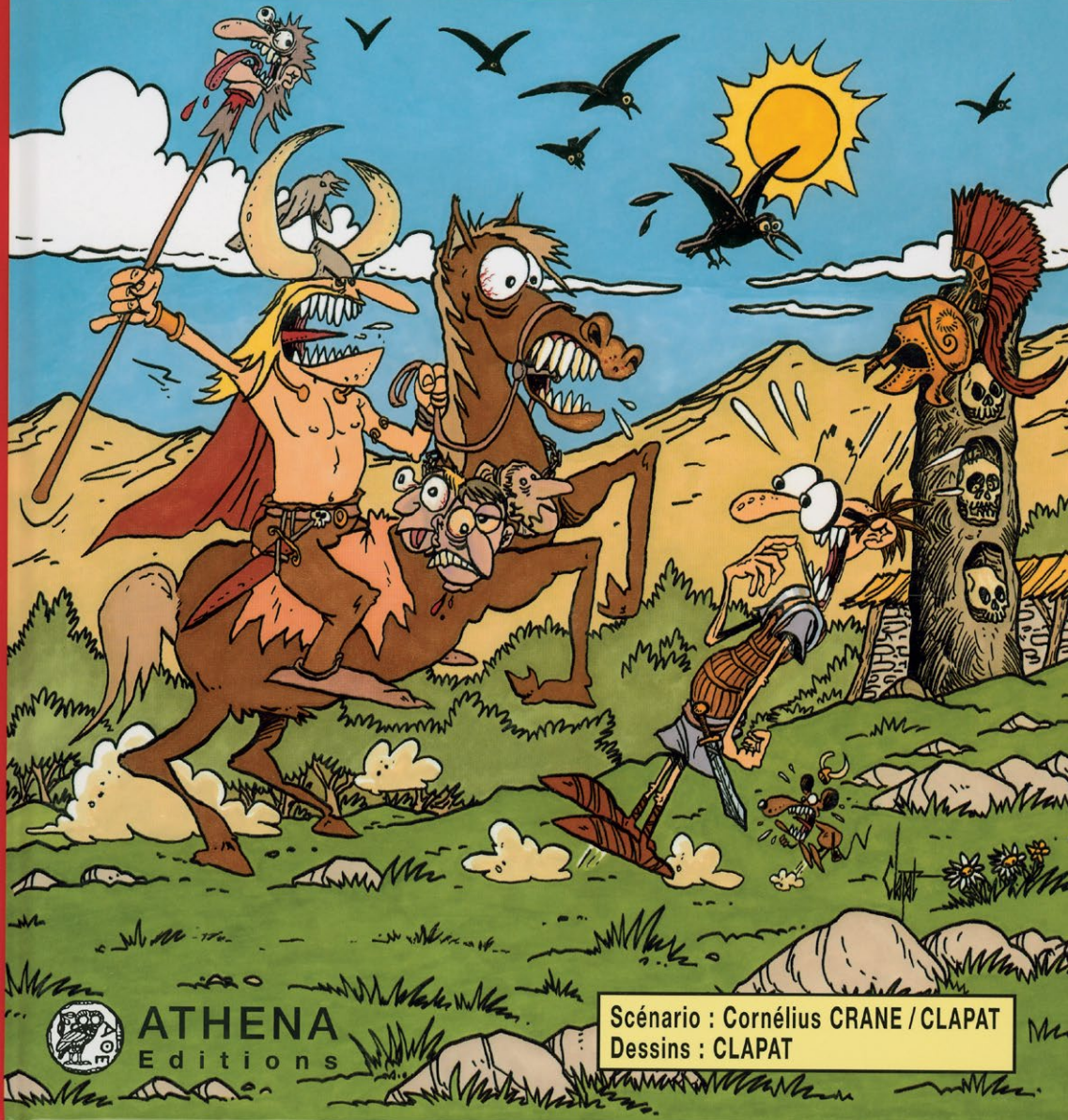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함께
역사를 더 쉽게 배우세요.**

유머, 역사만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이 담긴
우리 시리즈는 이미 전문가들과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240*340mm 판형. 내지 150g.
64쪽. 실 제본. 표지 270g.
하드 커버. 정가 19유로.**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골족의 나라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1



1. 켈트에서부터 갈리아에게 장악 당한 로마까지

모든 일은 자연사 박물관과 존재하지 않는 어떤 방을 방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머지 않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무스쿨루스는 초기 켈트 인들과 함께 유럽을 횡단하게 된다. 갈리아 마을에 초대받은 우리의 영웅들은 갈리아 켈트인들의 전통과 풍습을 소개해줄 것이다. 드루이드 승을 만나고 싶어한 알시비아드 디다스코는 카르누테스 숲에서 열리는 대 회합에 초대받는다. 알시비아드 디다스코는 신비한 마법의 약 덕분에 신들과 죽은 자들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고인돌이 있는 나라 아르코니크로 되돌아온 알시비아드 디다스코는 갈리아 민족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희생 풍습과 자신 역시 자칫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한 알시비아드 디다스코는 마살리아(마르세유의 옛 이름-뭍긴이) 설립에 참석해 피테아스 르 마살리오트를 만나기 전 켈트 족의 목을 베는 의식에 대해 배우게 된다. 시간을 거스르는 기계 덕분에 우리의 영웅들과 재회한 아게노르는 이들에게 비투리게스 왕의 세계 정복 원정에 참여하자고 부추긴다. 이 원정으로 인해 갈리아 족은 로마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건 물론 끔찍했던 알리아 전투와 로마 군의 설명할 수 없는 패배의 결과였다.

군대는 드루이드 승과 음유시인이 없는 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이 없었다. 종종 결정적인 교전이 있기 전 양쪽 진영 사이로 드루이드 승이 나타나 화합의 노래를 부르며 동족 간의 전쟁을 저지하곤 했다.



이와 반대로 예전엔 드루이드 승이 장광설이나 제스처로 적의 심기를 혼우기도 했었다.



그렇지, 그래! 완벽해!
내 말 분명히 들었느냐?
« .. 그리스놈들! »

어떤 음유시인들은 신통방통한 힘이 있어서 자장가를 연주로 전투 태세를 갖춘 부대 전체를 잠들게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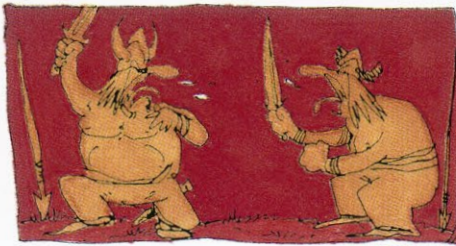


전사들이 전장 저편에 나타나 무기를 흔들면서 상대편을 도발하기도 했다. 도발에 응할 경우 전사들은 그들의 조상과 그 업적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 적들을 향해 농담과 시비를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는 시작되지 않는다.

외치자! 고래고래!
노래하자! 무기를 맞부딪치자!
전쟁의 나팔을 높이 울리자!



전투는 커다란 두 덩어리의 격돌이었다.오로지 신체적 우세나 우연, 신의 심판이 가져다 줄 승리만을 기다리며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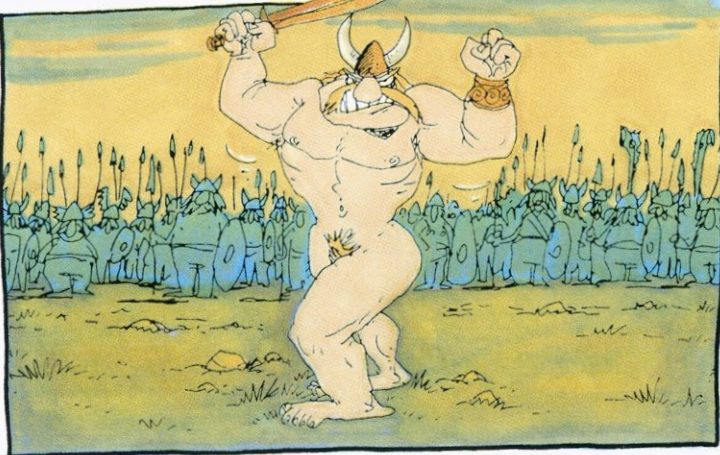


귀청 찢어지는 소리를 내서 저 놈들 혼을 빼놓자! 하카를 하자!

허수아비 같은 녀석! 진정한 소리가 뭔지 내가 보여주마!



전사들 가운데 별난 체급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에게 헌신되었는지 불들린 건지 전열의 선두에 선...



... 털복숭이 야수. 춤추는 인상파 미치광이 아니면 난쟁이들이라 상대를 겁주는 데는 최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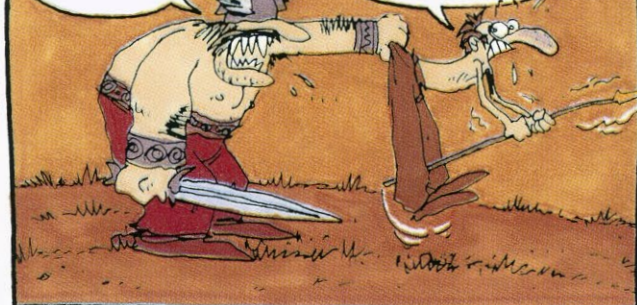


전쟁터에서도 마법은 있었으니까... 아, 옛날이여! 그 시절 우리는 정말 잘 놀았는데...



이제 네 차례! 자, 나가서 메두사 같은 네 머리의 진가를 보여주봐!

으..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피스라서요... 그냥 소리나 한번 더 질러보시는 게 어떨지...?



약아빠진 일러스트 같으니..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말도 안 돼!

어머넌! 아드레날린이 점점 차오르는군!



신들과 사자들

켈트 족의 법에 따르면 신들의 힘과 의지가 없다면 인간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이지 신성한 이야기로군!

갈리아 족의 신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 확실한 건 신들이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는 정신적으로 사랑 받는 존재라는 거지. 像(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신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나 돌기둥이었을 뿐...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어.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갈리아인들은 신을 위한 신전을 짓지 않았어.

신은 인간이 아름다움과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사는 거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인간에게 열정을 불러준다는 신인동형론은 갈리아와 로마 시대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어.

학자들은 저마다의 이론을 만들어 수많은 신성에 도달했고 그래서 부족마다 다른 신의 이름을 갖게 된 거야.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부족은 없었어.

세상에! 멀티 콘센트! 이게 무슨 신이람? 앞에 가서 보고 싶은데 대체 어디가 앞인지...

머리가, 아니 얼굴 셋 달린 신. 삼신. 켈트 족들한테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나보군.

드루이드 승이 글 쓰는 걸 금지했으므로 켈트 족의 종교에 대해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이 남긴 글만이 유일한 단서. 이를 통해 갈리아 인드의 종교에 대한 로마적 해석을 알 수 있을 뿐이야.

가끔 나는 테우타테스 신의 상징이었다우.

그리스 단어는 골치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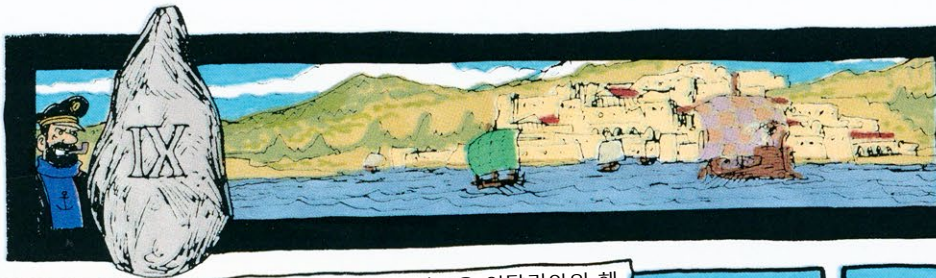
힘을 상징하는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갈리아인들의 상징이었지.

나는 테우타테스. 모든 예술을 발명했지. 도로와 여행가를 수호하는 내 덕분에 상업이 발달한 거야.

카이사르는 이렇게 썼어. 갈리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테우타테스라고. 로마인들은 그걸 메르큐리우스라고 부르렀지만 가끔 화성과 동일시 했지.

전설에 따르면 테우타테스는 섬에 묶였었다...

타르타로스에 묶인 크로노스처럼... 로마인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마실리아

« 환영하는 주인 » 유세노스와 « 손님에게 가장 친절한 여자 » 아리스토텐나와의 만남과 마실리아 또는 마살리아의 건립을 보게 되는 곳.

그리스 군대가 세운 꾀말을 따라 포세아에 인들은 이탈리아의 해안을 따라 가다가 리구리아 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땅에 도달했다.



카르타고 인들 못지않게 무서운 바다의 달리기 선수 에트루리아 인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더 밀려나는 건 당연했지.



여긴 사시 사철 온화하고 하늘은 늘 청명하고 바다엔 물고기가 넘쳐나고 땅은 비옥해.

우리 포세아에 인들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곳을 찾고 있어. 여긴 정말 마음에 들어... 이해 하지?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될까?



포세아에 인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농친 기회를 만회하기로 결심했지. 그러곤 포카리아 방향으로 배를 돌렸어.

가버린다. 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였지...



장담합니다. 거기야 말로 우리가 찾던 데라구요. 거기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요. 우리랑 같이 하겠소?



원정대장이 누 군지 알지?

그럼, 시모스와 프로티스라구요.



새로운 도시 국가 건설 대장으로 임명된 프로티스는 포세아에서 손꼽히는 장사꾼 집안 출신이었어.

어, 우리랑 같은 말을 하네. 우리 말고 다른 그리스인들을 만난 적 있을 거야.

어서들 오시게! 나는 마노스 왕이요. 오늘 우리 딸을 결혼시킬 거요. 당신들을 초대하오!



우리는 그렇게 세고브리게스 부족의 나라에 오게 된 거야. 총각 리구리아 부족장들은 전부 집사들처럼 힘 쓰는 일을 했어. 프로티스의 사윗감으로 선발되려고 말이야.

오, 그리스 사람들 일 좀 하시지. 다들 일하는 거 안 보이냐?

미디 지방 사람들은 꽤 친절하군. 심지어 우리도 초대했잖아.



그리스인들의 섬세함이란! 리구리아 남자와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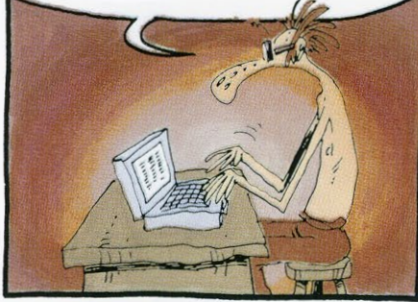
참 기쁜 날이로구나!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사이좋게 식사를 나누다니. 난 포세아에 인들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 그리스인들은 머리가 좋아.

자, 딸라. 이제 네가 너의 남편이자 나의 사위를 고를 차례다!



과연 그녀는 누구에게 이 순수한 물이 담긴 컵을 줄 것인가... 그나저나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왕족이 된다구요...?

갈리아 인들은 새의 비행을 예측하는 데 탁월하다. 때가 되자 신탁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찾았다는 걸 알려주었다...



세고베즈 너는 동쪽! 벨로베즈 너는 남쪽! 볼크, 보이앙, 아르베른, 게농, 에두앵, 암바레스, 오레르크, 카르누트 모두 너희들을 위해 모였다! 이들을 전부 다스리게 된 것을 영광을 알고 나를 영예롭게 하라!



실제 원정보다 준비하는 게 더 길군. 내가 아는 세상 정복은 약탈, 물, 금, 여인네, 싸움인데 말이야. 그거야말로 참된 인생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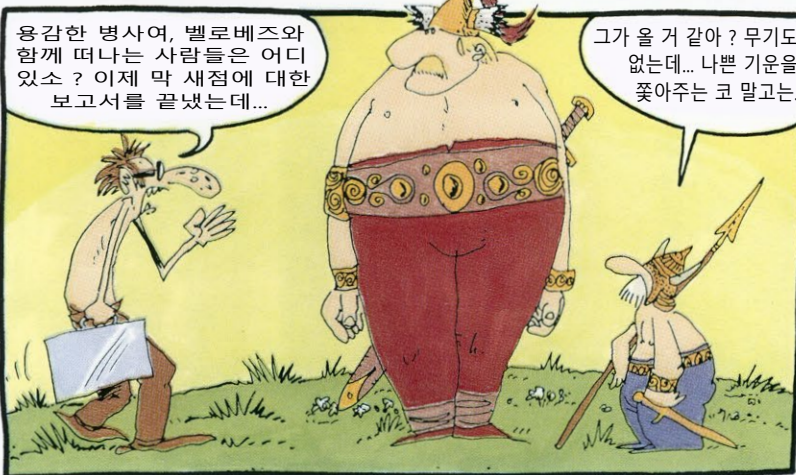
세 부족은 서쪽으로 네번째 부족은 북쪽으로 향했어. 세상의 사방을 향해 켈트 족은 땅을 차지했던 거야!



자, 다들 준비 된 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이제 좀 뛰어야겠어.

용감한 병사여, 벨로베즈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은 어디 있소? 이제 막 새점에 대한 보고서를 끝냈는데...

그가 올 거 같아? 무기도 없는데... 나쁜 기운을 쫓아주는 코 말고는.



그 잠든 단두인을 데려와. 그 어리바리는 내가 말지. 깨어날 시간이 왔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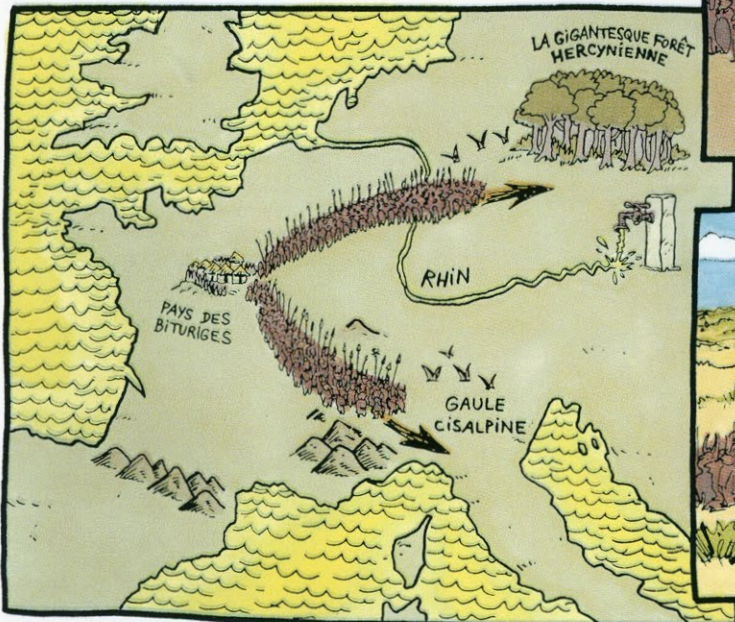


그런 차림이 훨씬 나아보인다는 거 알아? 투구도 안 썼는데 무척 무서워보이는 군... 정말 대단한 코야!

어쨌거나 저 놈도 코가 커. 이 만화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같아.



두 원정대는 길을 떠났다. 세고베즈는 고생대 석탄기 숲과 다뉴브 계곡에 도달했다. 벨로베즈는 미디 지방을 지나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켈트 족은 돌아올 거란 희망 없이 떠났다. 병사들의 원정은 무엇보다 이주라 부를 수 있는 거였다. 정복자들은 약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떠났다. 수레, 여자, 아이... 모두가 함께한 민족의 이동이었다... 갈리아 인들은 남쪽 땅이 비옥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상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다.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그리스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AN AMAZING ODYSSEY...

What could be more unusual than the the story of this Classics teacher who, with a little help from his Physics fellow-teacher, turns into a child again and sits with his previous pupils ? He will even have to experiment his friend's impressive new time-and-space machine and visit the earlier stages of mankind. A modern Ulysses, he will travel across historical times and space until he gradually step by step comes back to the present times with a full knowledge of history. With Einstein keeping an eye on him, Teacher Didascaux will find in a museum the traces of his visit during the Age of Pericles. The formulation of relativity ($E=MC^2$) will no longer mean Education equals Mathematics Chemistry Courses but Mythology, Culture, Civilisation. What a fine curriculum ! Energy Mass The speed of light.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로마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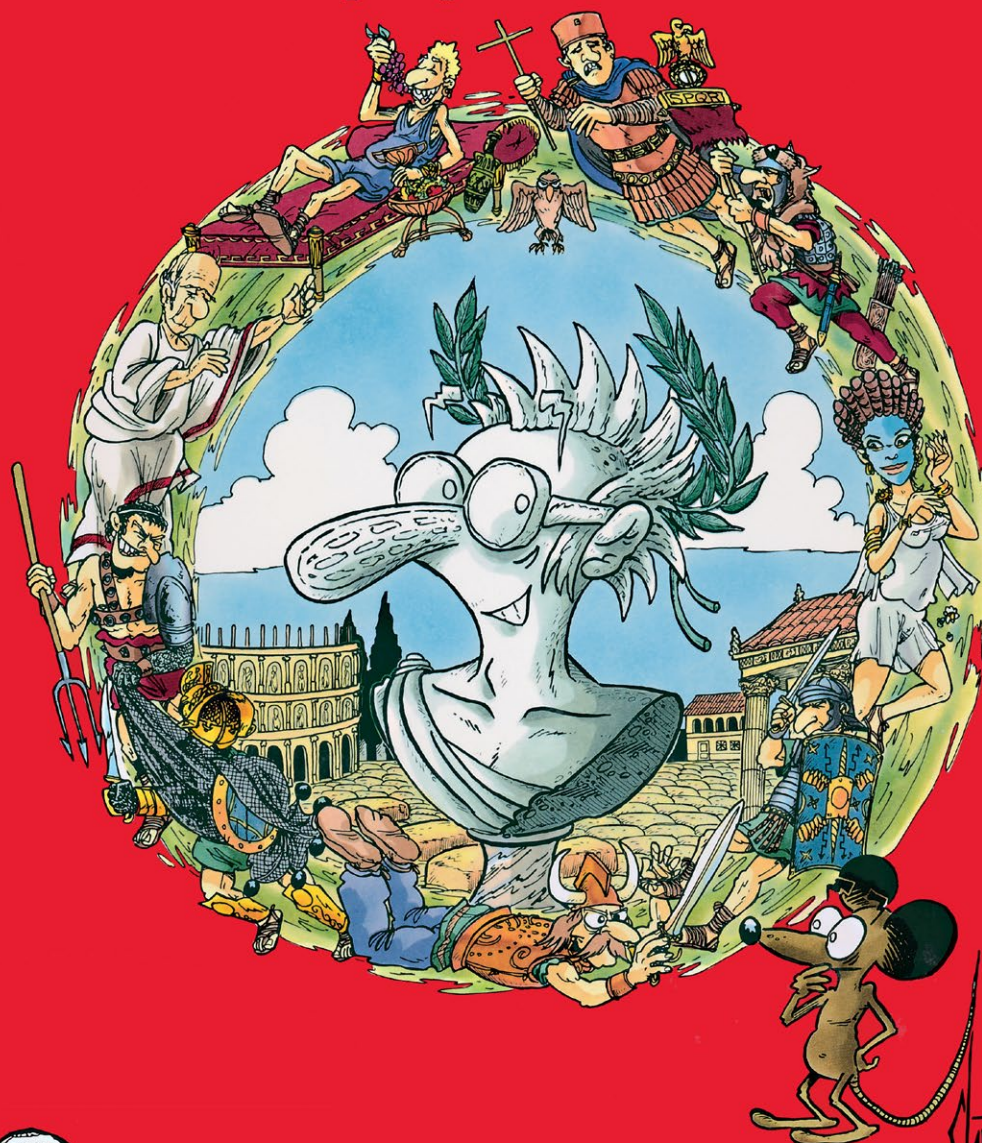
ATHENA
Editions

Scénario : CLANET / CLAPAT
Dessins : CLAPAT

After his amazing adventure in Greece, our hero Latin teacher Alcibiade Didascaux is very reluctant to climb again into the frightful device contrived by Agénor the Physics teacher, who would like him to. Never mind. A huge volume of the Eneid falls off the top of a classroom cupboard upon his head and knocks him out. Off he starts dreaming of ancient Rome and its legends. When he comes round at last, he realises he is back in Agenor's fearful machine where his pupils put him while he was unconscious. He can't escape the new experience ahead of him. He lands in an Etruscan tomb in 509 B.C. and is compelled to take part in several episodes of the real history of early Rome until he finds himself recruited as a legionary in consul Marius' forces. These new adventures are told in the second volume dedicated to the Roman empire.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로마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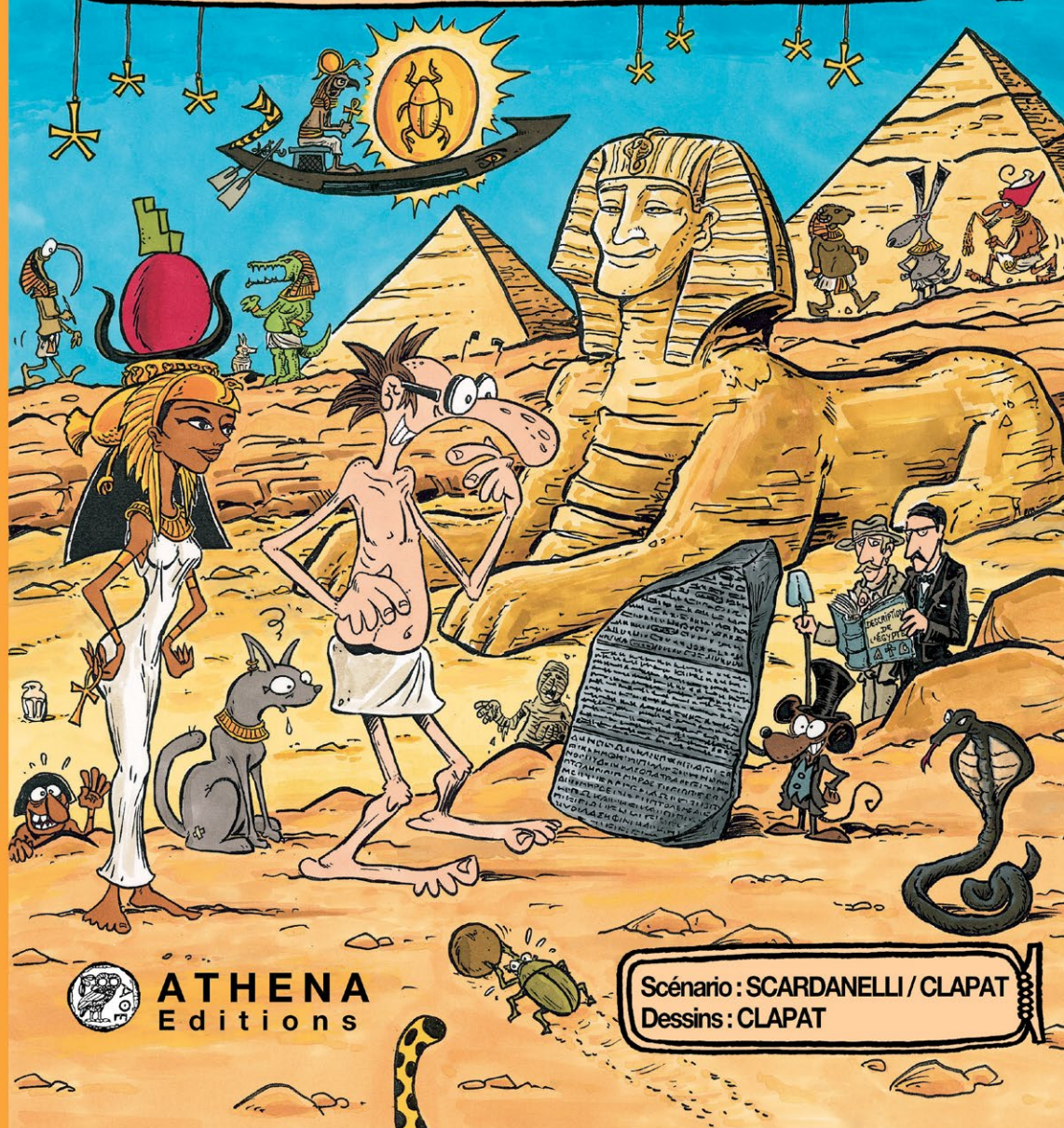
ATHENA
Editions

Scénario : CLANET / CLAPAT
Dessins : CLAPAT

After his amazing adventure in Greece, our hero Latin teacher Alcibiade Didascaux is very reluctant to climb again into the frightful device contrived by Agénor the Physics teacher, who would like him to. Never mind. A huge volume of the Eneid falls off the top of a classroom cupboard upon his head and knocks him out. Off he starts dreaming of ancient Rome and its legends. When he comes round at last, he realises he is back in Agenor's fearful machine where his pupils put him while he was unconscious. He can't escape the new experience ahead of him. He lands in an Etruscan tomb in 509 B.C. and is compelled to take part in several episodes of the real history of early Rome until he finds himself recruited as a legionary in consul Marius' forces. These new adventures are told in the second volume dedicated to the Roman empire.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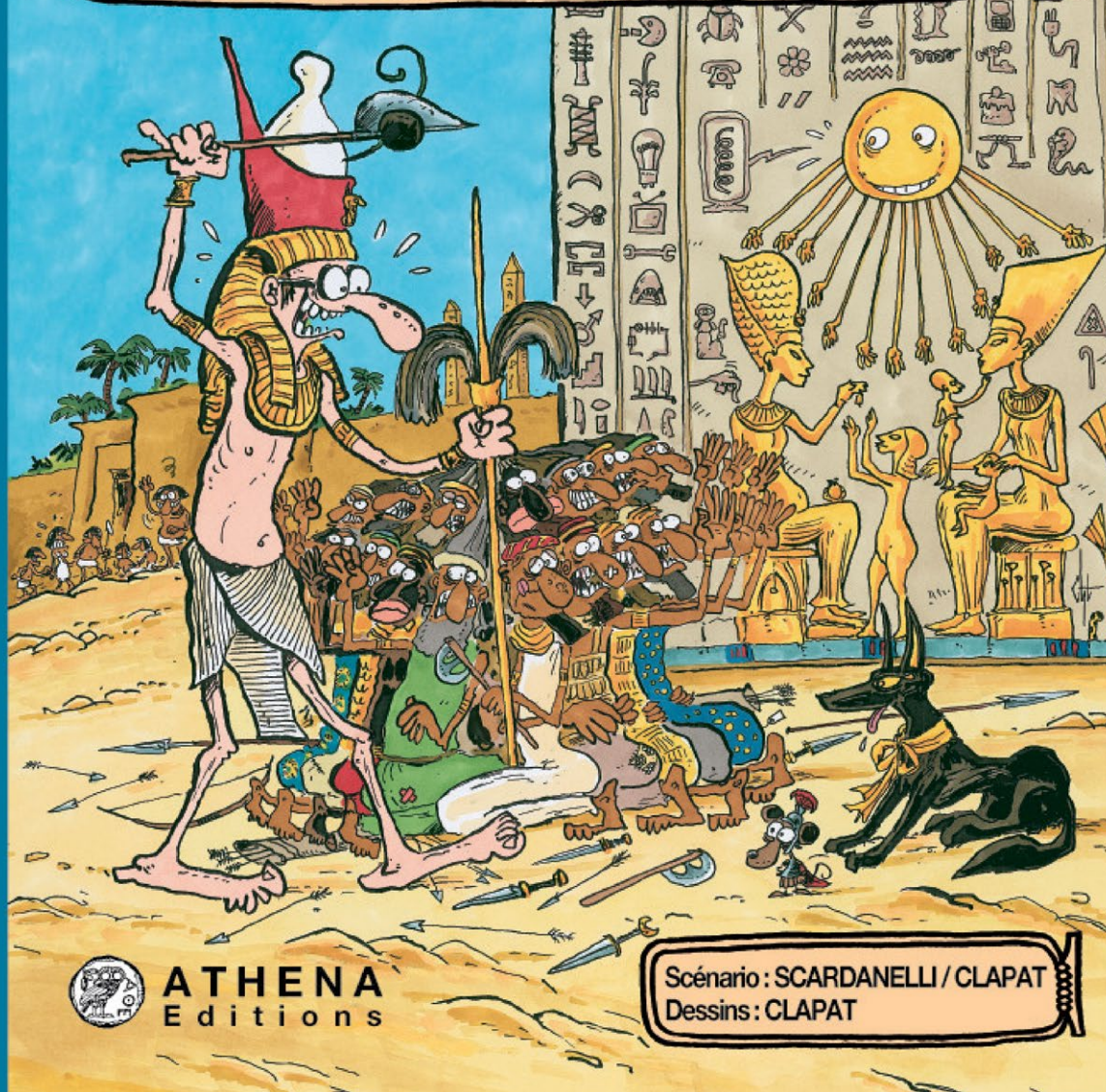
이집트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1



Following in Champollion's footsteps, Alcibiade DIDASCAUX goes to Egypt in search of the roots of our civilisation. We owe a lot to Hellenism, which is also indebted to Egypt. The friendly Classics teacher is sure of that and wishes to transmit his knowledge to his pupils. For once the nice man has succeeded in escaping Agénor, his Physics fellow-teacher. But it so happens that in the desert Alcibiade runs into a strange egyptologist who treats him to a very unusual cigar. The hero is then mysteriously sent up the time ladder. With us he discovers the pantheon of Egyptian mythology. Filled with wonder, he attends the birth of the world and lives the story of Ra the sun king, the legend of Isis and Osiris, the constant fighting between Horus, linked with the forces of light, and Set connected with darkness and cosmic chaos. Soon after Alcibiade Didascaux travels through the Pharaohs' fabulous world, discovers the benefits brought by the food-providing Nile and explains why Egypt is a gift from the Nile. He takes part in the building of the pyramids, reveals the meaning of those tombs and journeys through the underworld of the dead. The first volume ends with the strange story of Thoth's spell book that must not be read by anyone.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이집트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2



The thrilling time travel of our nice hero goes on. After undergoing a horrid mummification process, Alcibiade Didascaux discovers the splendid world of the pharaohs. As he lives the history of Egypt again, the Greek teacher meets all kinds of mythical sovereigns he will introduce: we are delighted to meet Hatshepsut the first Pharaoh Queen, Akhenaten the mystical monotheistic sovereign and his queen beautiful legendary Nefertiti, the great dynasty of the Ramses kings, builders and warriors. The hero will also revive the awful Persian invasions and make us dream with the fantastic tales of his predecessor Herodotus. Then he will us to Cleopatra's reign and the end of the pharaohs' mysterious world, when the most fabulous ancient empire will be turned into a Roman province.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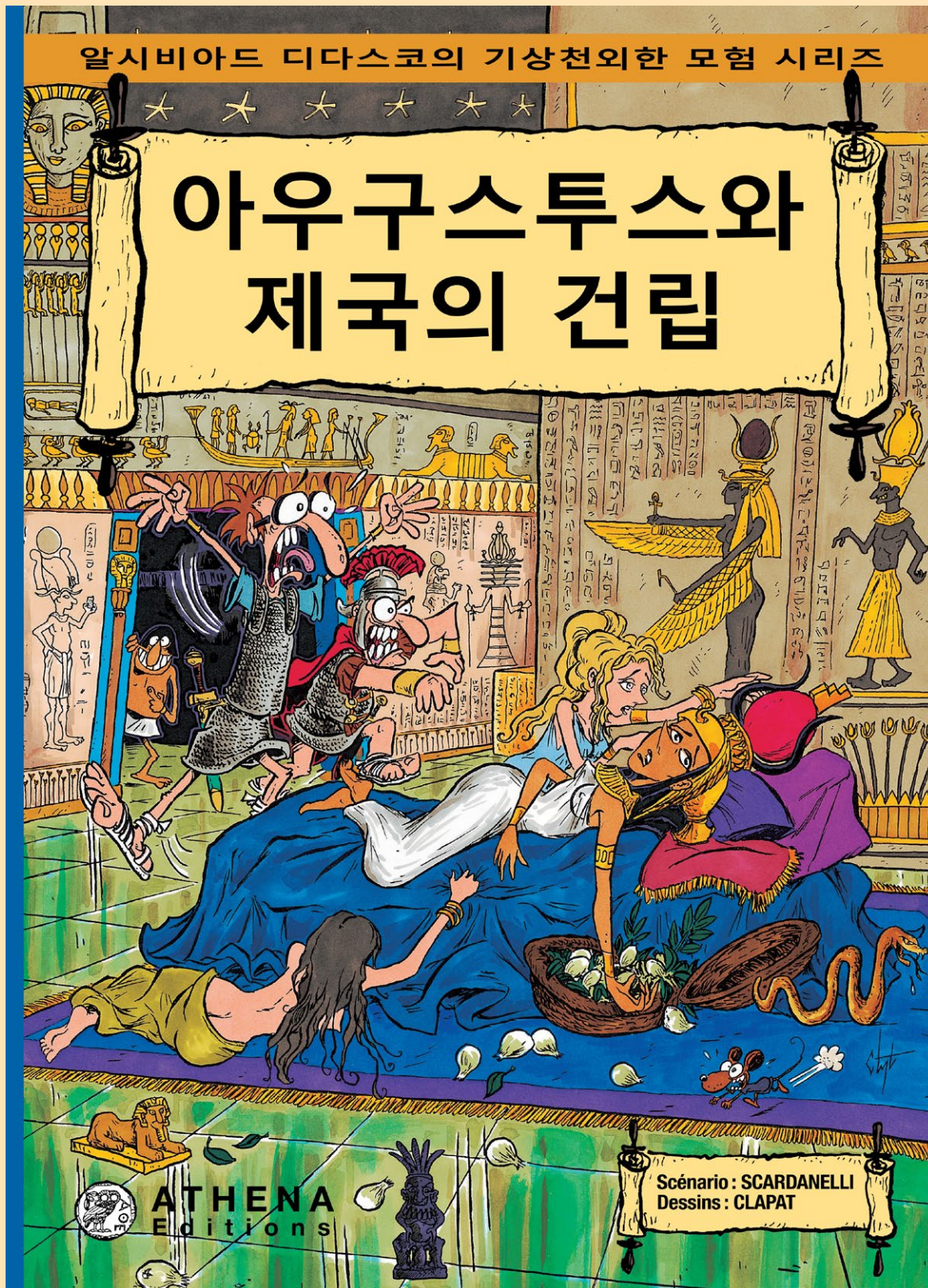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율루우스 카이사르



Now the master of the world, Caesar has settled with Cleopatra in his villa across the Tiber. After the battle of Munda, the Senate awarded him extraordinary divine honours. He now has boundless powers. Appointed consul for ten years and dictator for life, he is entitled to wear the traditional outfit of a triumphant on all occasions: a purple tunic and toga, a wreath of laurel leaves covering his bald head ! He also has the right to call himself imperator. A very wealthy man, he undertakes numerous ambitious reforms in Rome and the Roman empire but he is also responsible for mistakes that will give rise to the plot against him. On the fifteenth of March in the year 44 B.C., he is stabbed to death by the last republicans, lead by Cassius and Brutus « Kai su, teknon ». Caesar's last word were uttered in Greek !



The winner of the battle of Philippi, where he conclusively defeated the Republicans, in 42 B.C., Mark Antony becomes the new master of the Eastern world. The new mission he is given by the Senate is re-organising the Roman Orient. Then Alcibiade Didascaux et Musculus go to Tarsus and attend the famous first meeting between Cleopatra, the all-mighty queen of Egypt and Mark Antony, who used to be Caesar's partner and right-hand man and is the new prominent man in Rome. Soon after this « unforgettable meeting », Antony goes to Alexandria for an Egyptian holiday. There we discover what will be called « inimitable life » from now on. Glamorous, dazzling, mysterious Cleopatra is one of the most famous women in History. During her lover Antony's long absence, the situation in Rome gets very intricate indeed. Soon we see Octavius and Antony dividing the world among themselves by « the agreements of Brindes ». « Caesar's two heirs » put aside their brewing previous rivalry and become brothers-in-law ! Is Rome going to find peace thanks to their reconciliation after a long-lasting civil war ? Antony sees himself as a new Alexander the Great the world conqueror and dreams to conquer the East and take vengeance for Crassus' crushing defeat during the battle of Carrhae. Will he succeed in making his dream come true ?



After Antony and Octavius broke off, we discover how « Caesar's adoptive son » be-comes « Octavian the avenger of freedom ». Antony's rival uses awful propaganda against Caesarion, « so-called Caesar's son » and « bewitching Cleopatra who treatens Rome »

and portrays Antony as a traitor. Then Antony is declared « a public enemy » by the Senate and the war against Egypt breaks out. In 31 B.C., Antony's naval forces are crushed by Octavian off the coast of Actium. The last fights take place in Alexandria. Defeated and hopeless, Antony and Cleopatra commit suicide. It is the tragic end of one of the most beautiful love stories and the mysterious end of the most famous woman in history. Only the outward appearance of the Roman republic will be restored and in reality Octavian will impose his autocratic power over a « universal kingdom without using the word ». Egypt becomes a Roman province and its gold will enable Octavian to turn Rome into a marble city as he had pledged to. Born Octavius, becoming Octavian he founds the Empire and becomes Emperor Caesar Augustus. The first emperor had a very long reign and with him Pax Romana succeeds a nineteen-year-long period of warfare after Julius Caesar's murder. A new history of Rome is beginning. Caesar Augustus will be worshipped in Rome and deified in Egypt as Pharaoh Horus Augustus.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골족의 나라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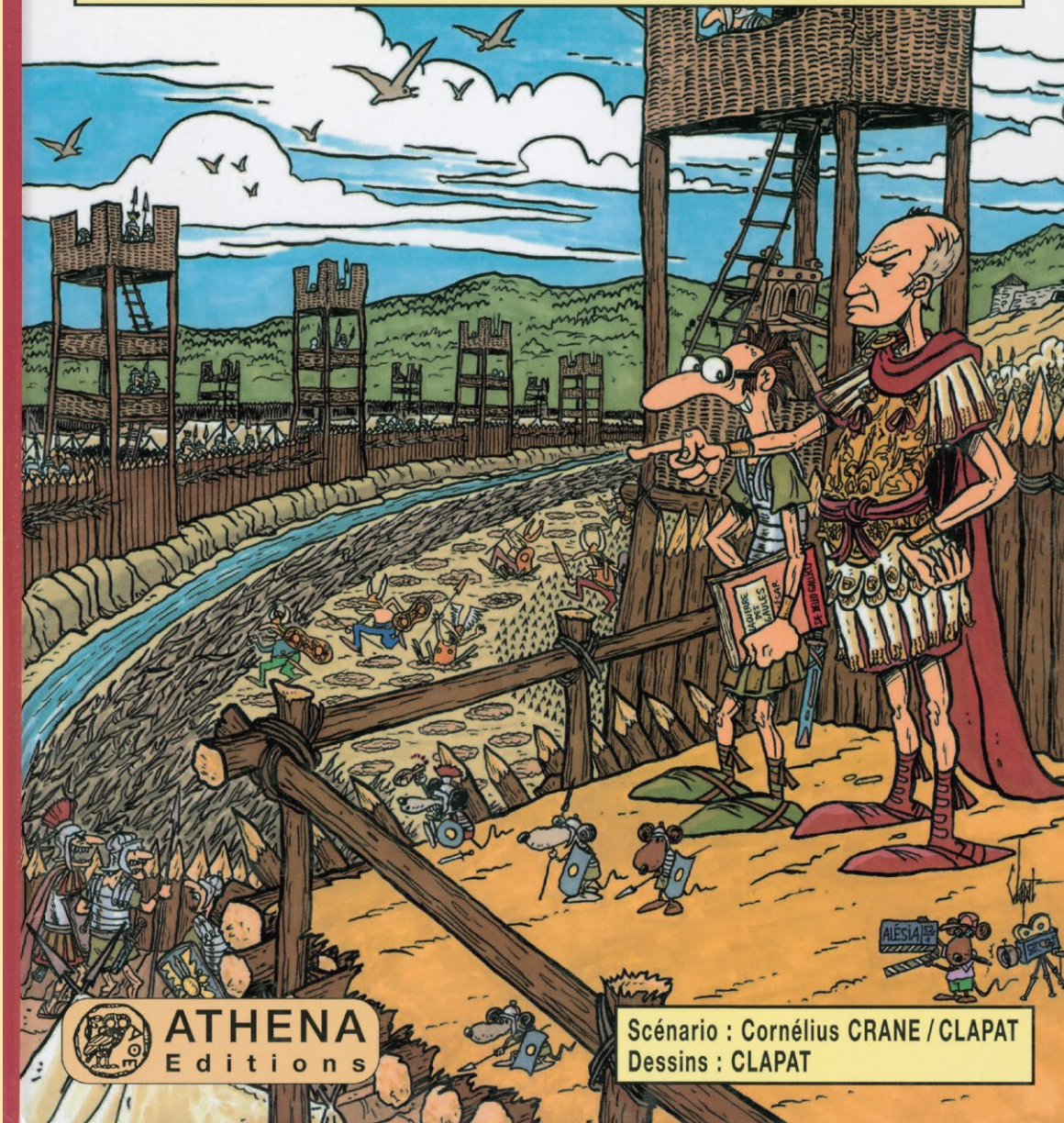
ATHENA
Editions

Scénario : Cornélius CRANE / CLAPAT
Dessins : CLAPAT

Alcibiade Didascaux attends the taking of Rome - except the Capitol which will not be stormed by Brennus' Gauls - and the payment of the ransom, then he relates the Gaulish expedition against Delphes where another Brennus wants to plunder the sacred place where the offerings of all the Grecian cities are gathered and challenges Pythian Apollo. Alcibiade Didascaux and Musculus then give us accounts of the kingdom of the Galatians, Celts from Asia Minor, the Gauls' adventure in Egypt, Camma's beautiful love story, the frightful Gauls recruited as mercenaries all over the Mediterranean world, the ensuing Gaulish fear, the history of cisalpine Gaul and Carthaginian general Hannibal's extraordinary military expedition against Rome during the second Punic war. After discovering the empire of the powerful Arvern kings, we witness the Roman conquest of southern transalpine Gaul and the foundation of the first Roman province in Gaul : « Gallia Narbonensis ». Then we learn about the Germanic peoples, the story of the cursed gold of Toulouse and Consul Caepio's unusual fate. After witnessing fearful Cimbrian, Teutonic and Helvetian invasions, Didascaux and Musculus will travel all over Gaul in the days of Julius Caesar before following the ambitious proconsul in his Gallic wars. The book ends with a major uprising of the subjugated Gauls in the year 52 B.C. led by a new chief Vercingetorix.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골족의 나라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3



 **ATHENA**
Editions

Scénario : Cornélius CRANE / CLAPAT
Dessins : CLAPAT

When Caesar is in Italy and his 10 legions are entrenched in their winter camps where they are invincible, the general uprising of the Gauls starts under the leadership of Vercingetorix, the Arvern chief. Once again the revolt starts among the Carnutes, where Alcibiade Didascaux makes a very narrow escape. Caesar's quick return, his behaviour in the Roman province « Gallia Narbonensis », Velladunum, Cenabum, the famous siege of Avaricum, Gergovia, the clash between the Gaulish army and the Roman legions are steps that take us to the long siege of Alesia, Caesar's most glorious military feat, where his military genius and his legions' uncommon bravery are demonstrated. The surrender of Alesia leads to the submission of most of the Gauls but some Celtic peoples with a glorious past such as the Belgians go on fighting until their lands are ultimately pillaged and « pacified ». The longest-resisting place is Uxellodunum, a small Cadurcian city. We will learn about the obstinate efforts of the true village of indomitable Gauls who dared to challenge the Proconsul to the last.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야만족의 침입1



ATHENA
Editions

Scénario : P. HAGGERSTEIN / CLAPAT
Dessins : CLAPAT

Musculus makes investigations in order to find Alcibiade Didascaux who has lost his way in the days of the Barbarian Invasions. The famous philosopher-mouse visited the baron of Montesquieu when he was writing his « Considerations on the Causes of the Greatness of the Romans and their Decline ». So we are going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 Germanic tribes. We will see how Rome will solve the problem and, as we are not in « the best of all the possible worlds », how other barbaric tribes will keep weakening the Roman Empire. Now new peoples swarm into the Empire : they are Alamans, Franks, Saxons, Burgunds, Visigoths and Ostrogoths. They will put so much pressure on the Empire that they will nearly break it into pieces. The terrible defeat of Adrianople will be a significant blow for the Roman army. It is generally considered as the start of the process which will lead to the complete fall of the Roman Empire two hundred years later...

We are going to witness the taking and sack of Rome by the Visigothic king Alaric. However we are not through with the Barbarians because the Huns are coming ! Those frightful plunderers are the forerunners of the disasters that will fall on the Roman empire and gradually destroy it for ever. We will see Flavius Aetius Patricius, often called « the last of the Romans » support the Western Roman Empire and we will watch the sudden changes caused by the innumerable hordes of Huns led by their leader Attila, the Scourge of God.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야만족의 침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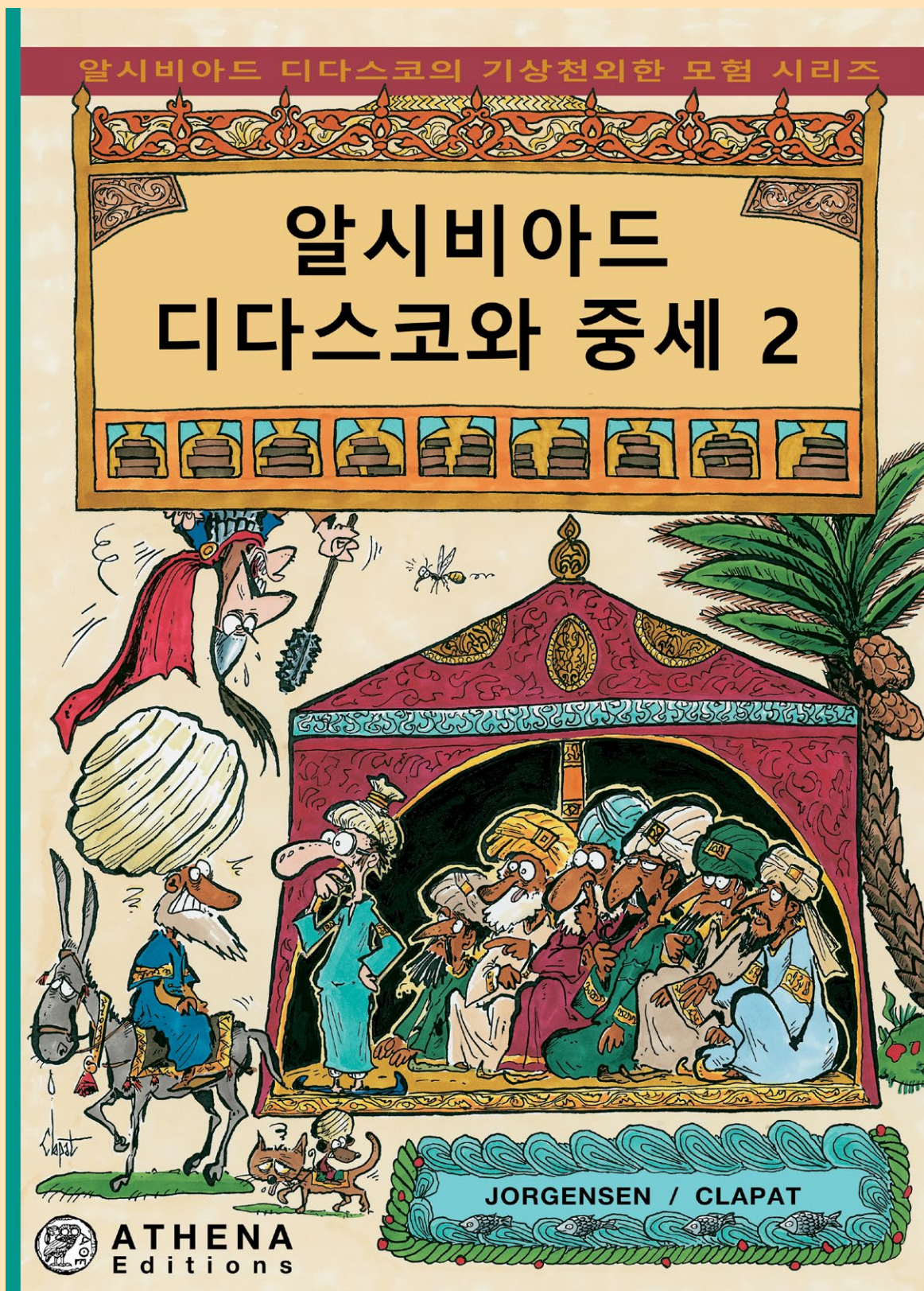


The Roman Empire is now very different. Fighting with the Barbarians has been the main preoccupation since the second century A.D. Since emperor Constantine, the so-called Roman armies have only been made up of barbarian mercenaries. Later Julian was proclaimed emperor standing on a shield, like a Germanic king, and in the end wore the hides of animals in the Frankish manner. Theodosius was the last emperor to control the Roman Empire. When he died, the Empire was divided for ever : Constantinople became the capital of the Eastern Empire, in the Western empire the capital was transferred from Rome first to Milan and later to Ravenna. If the Eastern Empire becomes very powerful, the Western Empire collapses. In 476, the so-called virtually powerless emperor Romulus Augustulus is deposed by Skyre general Odoacer. The Visigothic kingdom is the most powerful barbarian kingdom in Western Europe. Here comes Clovis ! The king of the Salian Franks is well known for being endowed with political sense, ruthless and unscrupulous. We will witness his irresistible ascent, his fight against Syagrius, the episode of the vase of Soissons, the battle of Tolbiac, his baptism, his fights against the Burgundians and we will see how after the battle of Vouillé, Clovis will establish his total supremacy by having all the other Frankish kings murdered. The book ends in 511 after Clovis's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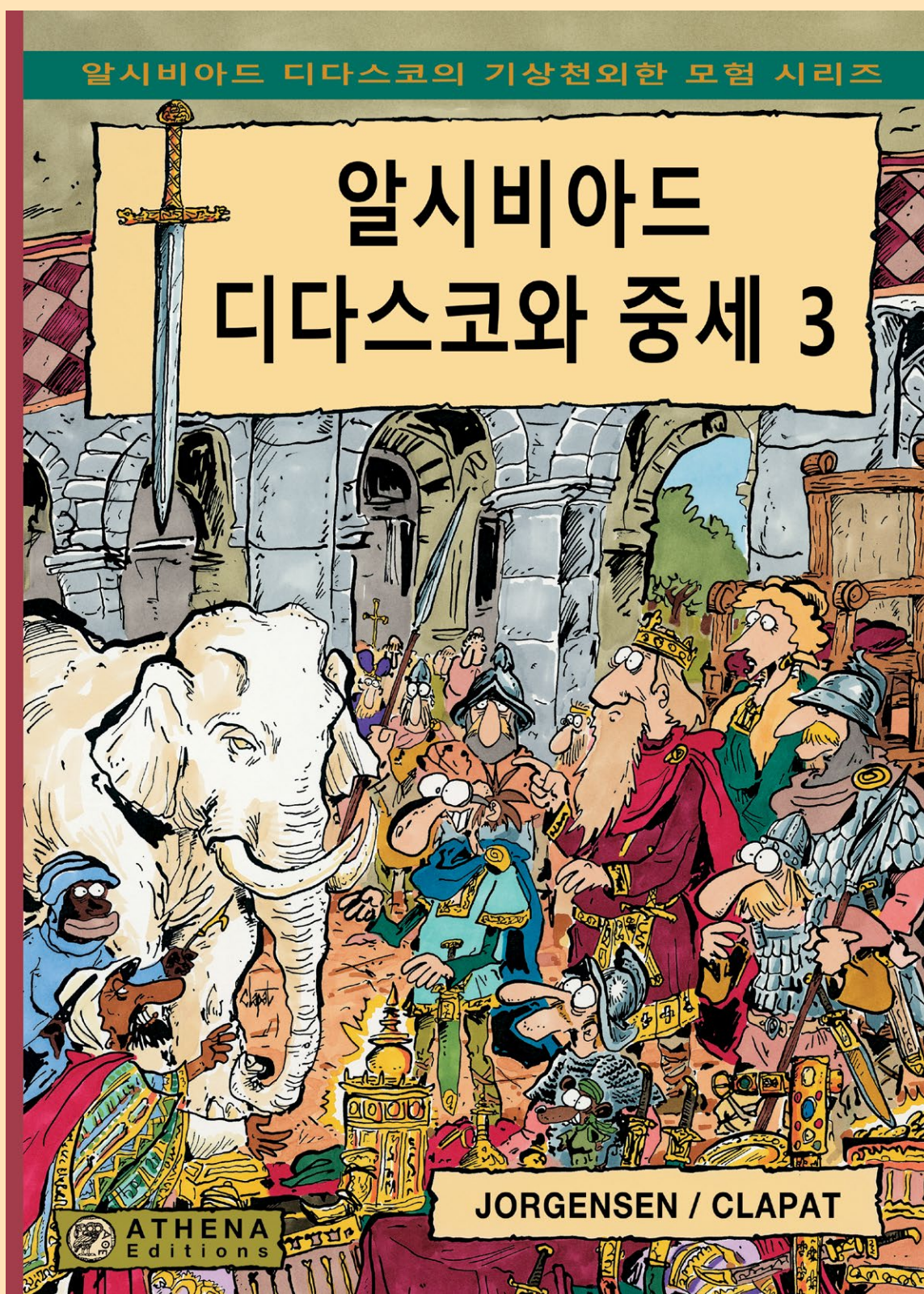
From the Merovingians to Charles Martel's rise to power

Alcibiade and Musculus happen to find themselves in the days of the Merovingians, where they first witness the clashes between Clovis's heirs. Then the famous Classics teacher tells us about the prominent characters of the early Middle Ages to explain the successive territorial divisions of the « Rex Francorum » : the story of Queen Fredegund, ruthless Brunhilda's unrelenting rival ; Chlotar II, Dagobert ; the do-nothing kings... Next we see the increasing domination of the mayors of the palace in the Frankish realm as the mayoral office becomes hereditary in the family of the Pippinids until Charles Martel rises to power, as we will see. At last Alcibiade and Musculus travel to Constantinople, the capital of the Eastern Roman Empire, which will play such an important part during the whole period. The capital of the Byzantine Empire is then besieged...



From the Islamic expansion to Pepin the Short

We are going to attend the major events taking place in the West and the East in Medieval Times, which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whole period : the ruthless power struggles in Constantinople, the birth and quick expansion of Islam, the conquest of Al-Andalus in Spain, the history of the Umayyads and the Abbassids, the foundation of the Caliphate of Cordoba by Abd Ar-Rahman, the last of the Umayyads. Next we will learn how Charles Martel will stop Islamic expansion near Poitiers. In the East, the Abbassids move the capital of the Muslim empire from Damascus to a new city, Baghdad « the city of peace ». In the Frankish empire, the Carolingians will succeed the Merovingians who are deprived of their rights to the throne by Pepin the Short. His son « Carolus Magnus » Charlemagne is the founder of this new western dynasty. We will also come upon new inventions : the stirrups, paper...all coming from China. All along this book, we learn what happens at the same time in the Frankish, Eastern and Byzantine empires, which enables u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orld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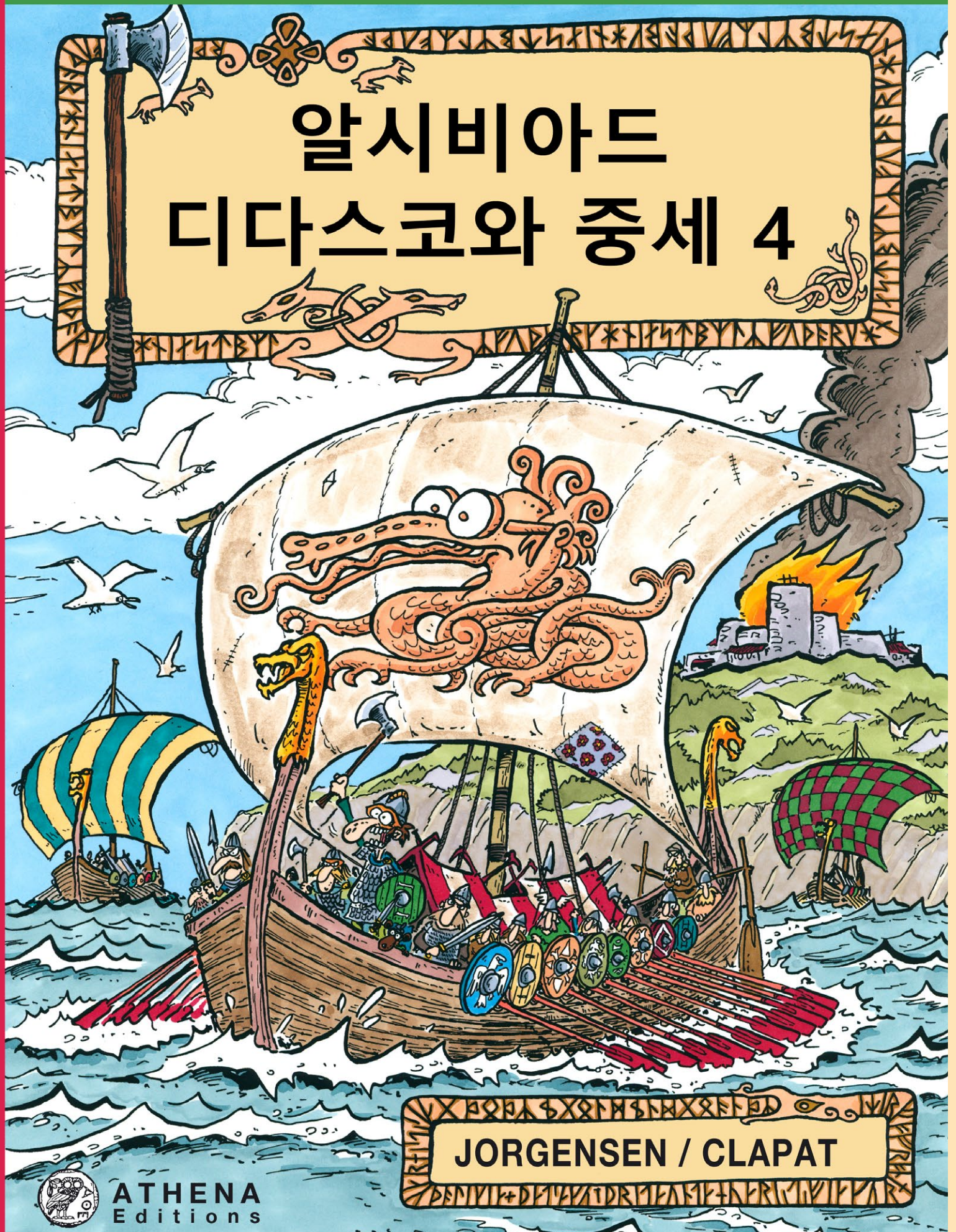
From Charlemagne to Louis the Pious

How come Charles, Peter the Short's son, succeeded in becoming Carolus Magnus and being crowned Emperor of the West ? What military conquests did he make and what were the conditions of what we call the Carolingian renaissance? We witness the building of the palace of Aachen or Aix-la-Chapelle and the tremendous expansion of the territory of the Franks after countless victorious military campaigns led by the greatest sovereign of his time, who reigned for nearly half a century. As the saying goes at the time « If you want to be a Frank's friend, don't be his neighbour ! ». Alcibiade and Musculus revive all these events for us in a new way as they also make us acquainted with the intercultural exchanges between Byzantium, Baghdad and Cordoba. At that time, the Basileus of Constantinople and the Khalif of Baghdad are considered to be the two pillars of the world ! Then we discover the amazing figures of Abbassid Khalif Harun-al-Rashid, the Khalif in the tales of the Arabian Nights at the top of his glory ; Abd al-Rahman I, whose Umayyad family ruled the Eastern Khalifate of Damascus until they were overthrown, becoming emir of Cordoba in the West ; and Irene of Athens, the only woman to call herself « emperor of the Romans ». In the early Middle Ages, in what we might call a part of the East and the West, those were the four great powers/kingdoms competing to become the masters of the world. Yet they ignored the rest of the earth.

2019년 10월 출간 예정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중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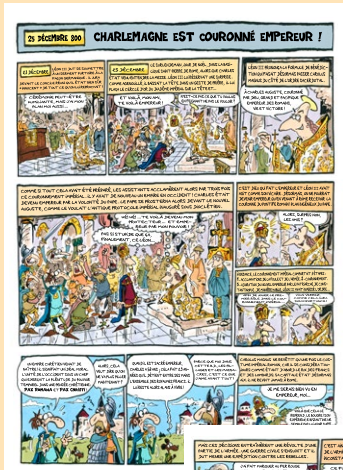
JORGENSEN / CLAPAT



ATHENA
Editions

THE ALCIBIADE DIDASCAUX SERIES, MUCH MORE THAN JUST COMICS !

« Follow the Classics teacher, you will see how easy learning history becomes. »



« I must say you really know the rules of the game : becoming well-read is great fun. Education should make people happy as far as possible. »

Ms Sylvie D. - 85110 Chantonnay



Follow Alcibiade DIDASCAUX's footsteps ! If you enjoy the Monty Pythons' humour, you will delight in reading Alcibiade DIDASCAUX's amazing adventures and learn about the past from genuine historical references! Those series are particularly popular in man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libraries. They have also been sold to the general public by such big booksellers in France. They were the first to sell our books in 1993 and are still doing so.

« Dear Alcibiade, how popular you are among my younger pupils. I might be a little envious ... »

Marine B. - Classics teacher - 83000 Toulon



A series of unusual comic strips. They don't belong anywhere in a publishing world of frequently standardized products. Alcibiade DIDASCAUX doesn't look like anything else. It is the reason why it has become so popular. Our books have become long sellers. More than 200 000 issues have been sold already, if we take all the different volumes into account.

Comics, with a real text to be read, true contents, real books.
Bear in mind reading is the universal key to knowledge.

« A central character like Alcibiade makes it easier to learn history. »

Ms Claire J. - 59212 Wignehies



In fact which other series offer both « humour » and « a truthful relation of history » acknowledged by the greatest specialists ? Little wonder its readers range from youngsters aged 8 or 9 -if they are very good readers- and mostly 11 or 12 to a wide public of culturally-minded teenagers and grown-ups in love with history. As it happens, all readers no matter their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have their own way of appreciating our culturally-oriented comics.

« Thank-you for taking the responsibility to show knowledge can be made attractive to all kinds of readers without distorting real historical facts. »

Jean-Pierre B. - 40250 Lamothe

Contents of each volume : 64 pages of comics printed on heavy-duty paper, glossy cardboard covers. Size 24.5 - 33.5cm.

« ALCIBIADE DIDASCAUX » MORE BOOKS TO COME OUT !

« A central character like Alcibiade Didascaux makes it easier to learn histor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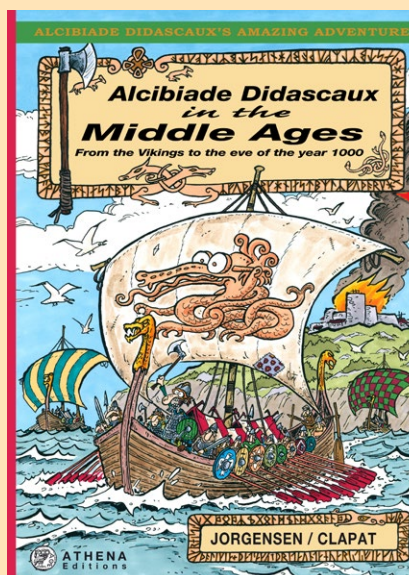
THE SYNOPSIS TABLE WITH COMPARED CHRONOLOGY WILL ENABLE YOU TO FOLLOW THE EVENTS TAKING PLACE AT THE SAME TIME IN THE FRANK AND ISLAMIC AREAS, CONSTANTINOPLE AND CHINA.

ALCIBIADE DIDASCAUX IN THE MIDDLE AGES

This set of books will consist of 8 to 10 volumes. It leads us to the Renaissance, when we rediscover antiquity.

Tableau synoptique avec chronologie comparé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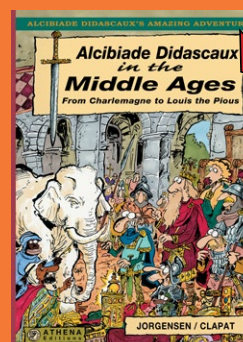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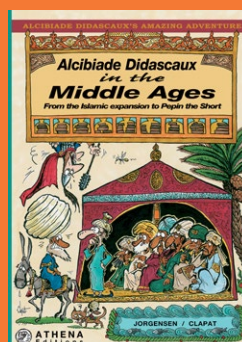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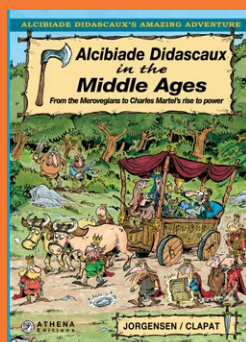
FRANCE	ISLAM	CONSTANTINOPLE	CHINE
1171 - Mort de Charlemagne. Charles devient roi de France. Il est couronné à Reims. Son règne est marqué par la lutte contre les Vikings.	1171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1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1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2 - Charles le Simple est couronné roi de France. Son règne est marqué par la lutte contre les Vikings.	1172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2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2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3 - Charles le Simple est couronné roi de France. Son règne est marqué par la lutte contre les Vikings.	1173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3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3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4 - Charles le Simple est couronné roi de France. Son règne est marqué par la lutte contre les Vikings.	1174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4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4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5 - Charles le Simple est couronné roi de France. Son règne est marqué par la lutte contre les Vikings.	1175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5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1175 - Le Califat abbasside est en déclin. Les Seldjoukides prennent le pouvoir en Iran.



To be published 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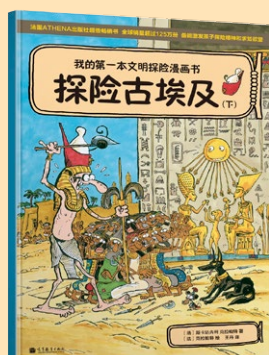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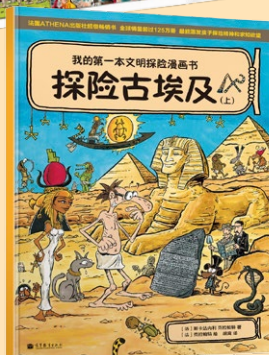


The first three comics are now available. The fourth one is to be released by the end of 2016.



published in 2015

A Chinese version of Alcibiade Didascaux is now available. More translations into Korean, Spanish, German, English, Italian, Vietnamese... are in progress.



영웅들이 들려주는 그리스 신화

나는 테세우스, 아테네의 왕 !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QUINTUS

CLAPAT

나는 오이디푸스, 테베의 왕 !
오이디푸스 신화



QUINTUS

CLAP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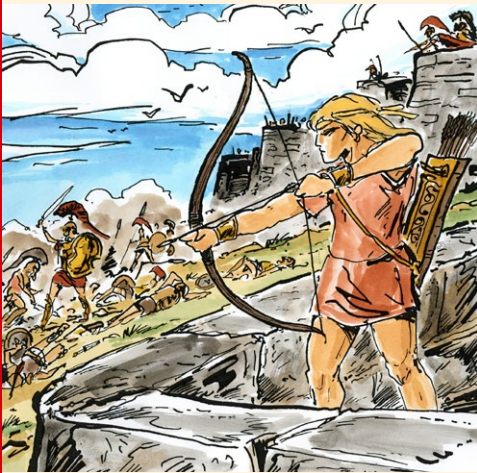
나는 페르세우스, 아르고스의 왕 !
**페르세우스와
괴물 메두사**



QUINTUS

CLAPAT

나는 울리시스, 이타케의 왕 !
**아킬레스의
마지막 전투**



QUINTUS

CLAPAT

나는 이아손, 이올코스의 왕 !
황금 양모



QUINTUS

CLAPAT

**툴르즈의 저주
받은 황금**



QUINTUS

CLAPAT

*Quickly log on to our website
and meet your favorite heroes !*
www.athena-editions.com